

보도시점

(전매체) 배포즉시

디지털혁신과 폐지는 정책을 통합·운영하고,
R&D, 스마트 제조 등 기능적인 부분은 특화하여
정책 성과를 내도록 기능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전자신문은 12.6일자 「중기부 디지털혁신과 폐지, DX·탄소중립 동력 상실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중소기업 디지털전환(DX)과 탄소중립 정책 총괄 부서 해체를 언급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목표가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디지털혁신과의 디지털전환(DX)과 탄소중립 정책 기능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기부 내 미래전략 분석·수립과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중소기업전략기획관으로 이관하여 정책을 통합·운영하도록 기능 재정비한 사항입니다.
- 또한 R&D 지원·기획 등 기능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스마트 제조와 스마트서비스 지원 등 특화가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기술혁신정책과, 제조혁신과 등으로 이관하여 정책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디지털혁신과 폐지에도 관련 정원은 감축없이 유지하고,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장세훈	(044-204-7340)
		담당자	사무관	이근림	(044-204-7341)